

코로나 재유행 본격... 하루 500명대 눈앞

제주 최근 일주일 하루평균 357명... 전주대비 갑절
백신 면역효과 감소·여름철 이동량 증가 등이 원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주도가 집계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3명으로, 누적확진자는 24만2431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는 49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2505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이는 전주 대비 1372명 증가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지난 3일 174명, 4일 285명, 5일 381명, 6일 413명, 7일 394명, 9일 492명 등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확진자 비율은 연령별로 0~9세 15.6%, 10~19세 19.6%, 20~29세 13.8%, 30~39세 14.6%, 40~49세 14.0%, 50~59세 10.9%, 60~69세 6.1%, 70~79세 3.2%, 80세 이상 2.2%

등을 보이고 있다. 도내 위중증 환자는 5명이며 현재 도내 격리중인 확진자는 2428명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원인으로서는 최근 백신 면역효과 감소와 여름철 이동량 증가 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국면 전환을 언급하고 경각심을 당부하며 그간 우려됐던 재유행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에서 풀었던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해 오는 13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대응행위와 유행 전망이 다른 만큼 앞서 실시됐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일부터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는 국가가 지속 지원하고,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조제 시 발생하는 치료비는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재택치료자는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관찰하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할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경찰 중립성 훼손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제주경찰직장협의회
최남단 마라도서 시위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노조 격인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 마라도 치안센터와 최남단 표식비 등에서 경찰국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내무부 장관(현 행안부 장관)의 경찰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내무부로부터 분리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는 30여년간 지켜온 경찰 중립성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안부는 ‘법무부에 검찰, 행안부에 경찰’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논리는 정부조직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묘산봉 사업 김녕리-사업자 상생협약

마을회 “개발 속도 붙을 것”... 도, 내달 변경안 심의

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었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녕리 주민들이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마을회는 지난 7일 묘산봉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제이제이한라와 맺은 ‘김녕리 지역경제 발전 및 상생 협약서’ 변경안을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녕리마을회는 이번 협약 변경안에 제이제이한라가 진행 중인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합작 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녕리마을회는 “한라기업이 리조트 전문기업이 아닌 이유로 추가 관광지 개발 등 사업 속도가 더딘 것을 마을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

번에 아난티라는 국내 고급 리조트 전문가그룹과의 합작 투자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에 상당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김녕리장은 “상생 협약 변경을 통해 김녕리와 사업 시행자인 제이제이한라, 신규 투자자인 아난티한라와의 신뢰를 확인했다”며 “기업 투자 유치와 행정 절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으로 변경 상생협약을 통해 마을 생산품 이용, 대규모 고용 창출 등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내달 회의를 열고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리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합작투자법인에 시설물과 토지를 매각한 협약서에 대한 검증 및 올해 말로 예정된 사업 기간 재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만수 이룬 물장을 산정 분화구 9일 제주시 봉개동 물장을 산정 분화구가 만수를 이룬 태곳적 신비를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교육공무직 61명 신규 채용 교육청, 20~21일 원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개 직종 61명을 채용하는 ‘2022년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채용하는 직종은 조리사 19명, 조리실무사 42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저소득층 4명과 도서 지역인 추자도 근무자 1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해당 직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제주도민으로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을 통과하면 응시 가능하다. 단 조리사는 조리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20~21일 이뤄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늘 비 날씨... 폭염은 계속

예상 강수량 5~40mm

제주지역에 모처럼 반가운 비 소식 이 예보됐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1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는 11일 밤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12일 새벽 곳에 따라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다. 11일 제주지역 예상 강수량은 5~40mm이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또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낮 최고기온이 33℃, 14일에는 34℃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체감온도는 더 높

을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도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9~32℃로 예보됐으며 이는 평년 기온보다 2~4℃ 가량 높은 수치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도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고성능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강자

World Class, Only 1

SILCROAD Package v2

CDC(Change Data Capture)

Oracle 대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기술 보유

다양한 목적DB
지원으로 유연한
시스템 구성

목적DB 비용까지
낮추는 IT인프라
비용 절감

SILCROAD (주)실크로드소프트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센터 7층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3 정선빌딩 5층
 Tel 031-888-5698 Fax 031-888-5699 Homepage silcroadsoft.com